

연세대학교 근대 건축물: 스팀슨관·언더우드관·아펜젤라관

Stimson Hall, Underwood Hall & Appenzeller Hall in Yonsei University



이 상 윤 / 연세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Lee, Sang-Yun / Assistant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angyunl@yonsei.ac.kr

1. 서론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근대 건축물은 침략과 억압을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의 한국 근대교육을 목적으로 지어진 대학 캠퍼스 소재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계획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 서울캠퍼스에는 스팀슨관(사적 275호), 언더우드관(276호), 아펜젤라관(277호)을 들 수 있다. 이 세 건물은 비슷한 시기에 고딕풍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일반 서양 고딕양식과는 다르게 과장이 없는 절제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초기 건축물의 규모와 외관이 오늘날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본연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등,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 건축물의 연혁 및 개요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한국 근대교육을 이끈 연희전문대학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박사에 의해 1886년 언더우드학당으로 시작하였으나 연희전문학교 설립인가는 물론 지금 현 교지를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후 건설된 연세대학교 구 연희전문학교는 1917년도 학교 설립인가를 통해 당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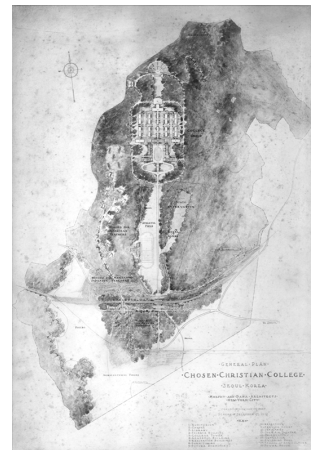


그림 1. 연희부지 마스터플랜 (1917년, www.yonsei.ac.kr)

표 1. 건축 개요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라관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275호	사적 제276호	사적 제277호
지정연월일	1981년 9월 25일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소유자 및 관리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설계자	머피(Henry Killian Murphy)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4층(일부 옥탑층)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구조	구조- 목조 트러스, 외장재- 운모편암		
건축면적	연건평 1,154m ² (349평)	연건평 2,703m ² (819평)	연건평 1,729m ² (523평)
건물형식	준 고딕식		
기공 및 준공	1918년 2월 기공, 1920년 8월 준공	1921년 4월 기공, 1925년 6월 준공	1921년 4월 기공, 1922년 3월 준공

* 출처: 서울문화재 웹사이트(<http://sca.seoul.go.kr>)

1920~1925년경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스티imson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라관 모두 예일대학 출신인 미국건축가 머피(H. Killian Murphy)가 측량 및 설계 등을 담당하였고, 당시 이 학교 화학과 교수인 밀러(E. H. Miller)가 공사를 감독하였다.¹⁾

3.1 스티imson관

스티imson관은 연희전문학교 창립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인 찰스 스티imson(Charls S.M. Stimson)으로부터 25,000달러의 기부금을 얻어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된 건물이다.²⁾

현재 연세대 캠퍼스의 골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스티imson관의 공사로 인해 백양로의 첫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 다른 대학 건물의 중요한 사례로서 가치를 지닌다.

3.2 언더우드관

언더우드관은 연희전문학교의 창설자인 언더우드(한국 이름 원두우) 박사의 업적과 인격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형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지은 것으로 1950년 한국전쟁 때 건물의 내·외부가 크게 파손되어 전후 복구되었다.³⁾

초기 마스터플랜의 중심축이자 중요한 정점에 위치한 이 건물은 절제된 상징성을 지닌 중심건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3.3 아펜젤라관

아펜젤라관은 언더우드 박사와 함께 내한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H.G. Appenzeller)를 기념하기 위하여 명명되었다.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로 배제학당을 설립하는 등 교육과 선교 사업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⁴⁾

연희전문학교의 두 번째로 건립된 석조 건물로 세 건물 중 가장 모던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4. 건축적 특성 분석

4.1 건물 배치 특성

스티imson관·언더우드관·아펜젤라관은 미국 캠퍼스의 전형인 병렬형 배치방식을 하고 있고, 중심축을 강조하는 2차



그림 2. 현 연세대 마스터플랜 (2012)

형태인 대칭배열이면서도 각각의 건물에 다양한 건축 요소를 사용하여 다채로움을 잃지 않는다. 또한 도시 외곽의 산지를 캠퍼스 부지로 선정·개발한 점도 미국 캠퍼스의 개발 방식을 닮았다.

캠퍼스 배치는 중정형의 배치를 띠게 되고, 현 백양로를 중심축으로 조성된 캠퍼스의 골격은 초기 마스터플랜에 의해 조성된 좌우 배열을 강조한 투시적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다.

4.2 공간 기능적 특성

초기 스티imson관은 교사동으로 지어졌고, 현재는 연세대 대학원 본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강의실 전용 건물로 사용되었던 언더우드관은 현재 총장·부총장실 및 대학본부 사무실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아펜젤라관은 신축 시 이과대 건물(물리·화학·생물·실험실 등)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신과대학 건물로 변경되었다.

건축전문지인 ‘조선과 건축’의 내용에 따르면, 1920년대 말의 연희전문학교의 건축은 대지 내 산간에서 채굴한 운모편암을 주요 석재로 하여 요소요소에 화강암을 넣은 순석조인 본관(스티imson관)·학관(언더우드관)·이학관(아펜젤라관) 및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관은 사무실·교장실·학감실·강당·교수회실·신학실·교원실·회계실·서무실 및 건축과 등을, 학관은 교실을 주로 하고 교원실·타이프라이터실·제도실·도서실 및 식당으로 되어 있다. 이학관은 물리·화학·생물학·실험실·물리 및 화학교실·표본실·천칭실·화학약품실 및 교원실로 되어 있다.⁵⁾

단순한 장방형 평면과 중복도식의 구성방식은 세 건축

1) 서울특별시, 서울건축사, p166, 1999

2) 출처: 문화재청

3) 출처: 서울문화재 웹사이트, <http://sca.seoul.go.kr/>

4) 출처: 서울문화재 웹사이트, <http://sca.seoul.go.kr/>

5) 조선과 건축, 제7집 제3호, 1928, pp.135~137

물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건물 양단으로 큰 강의실과 큰 사무실을 두어 기능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4.3 형태 및 외관적 특성

3개의 건물 모두 주변 산에서 채취한 운모편암석을 주 외장재로 사용했고, 창문 테두리는 화강암을 썼다. 또한

공통적으로 저층부에 화강석 띠를 두르고, 창 웃인방에 화강석을 두껍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표 3>의 정면도를 보면, 아펜젤라관은 정확한 대칭형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스팀슨관과 언더우드관은 지붕을 뚫고 나오는 굴뚝과 돌출창이 엄격한 대칭 형태를 깨고 있다. 각 건물에 위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한 돌출창(bay window)은 단순한 석재 외벽에 상징적인 변

표 2. 평면도 및 내부 사진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라관
지하층			
1층			
2층			
내부홀 사진			

* 평면도 출처: 문화재청 (20세기 초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

표 3. 정면도와 창호 입면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라관
건물 사진			
정면도*			
창호 입면			

* 출처: 문화재청 (20세기 초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

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더우드관은 건물 양단부와 계단 탑 부분에도 사용되어 기능이 아닌 의장적인 효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 요소를 갖춤에도 차분한 느낌의 외장재와 대칭과 반복성으로 절제된 단아함을 보인다. 세 건물 모두 주 출입구에는 튜더(tudor)풍의 아치(arch)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요소로 하여금 준 고딕식의 양식을 보인다.

3개의 건물이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창호 패턴에서 찾을 수 있다. (표3)의 창호 입면 참조) 스티븐슨관과 아펜젤라관은 창문 3개가 짝을 이루며 하나의 틀 안에 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언더우드관은 창문 4개가 한 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 장방형의 언더우드관이 나머지 두 건물과 비슷한 비율로 보이는 효과를 지닌다. 또 다른 분위기 연출은 아펜젤라관에서만 보이는 연속된 창의 배열에서 나타난다. 스티븐슨관과 언더우드관의 창호배열은 일반적인 조적식 건물에서 보이는 창간의 일정한 간격이 보이는데 반해, 아펜젤라관에서는 20세기 이후의 모던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연속된 띠창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전적인 정확한 대칭형의 모습을 지니면서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입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5. 결론

스티븐슨·언더우드관·아펜젤라관은 1900년대 초에 지어진 서양양식의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 당시의 원형(기능과 형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창호에서 나타나는 수직 요소의 반복적 패턴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학생회관, 백양관, 대강당 등의 연세대 주요 건물에서 그 공통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회색 계열의 석재 마감 또한 캠퍼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전체적인 통일감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건축물로 인해 과거 근대 건축물들이 소외당하는 이 시대에 과거 건축을 거울삼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스티븐슨·언더우드관·아펜젤라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참고문헌

1. 문화재청, 20세기 초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 2000
2. 이승진, 한국 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 현황에 관한 연구: 국

가지정 사적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pp.114-119, 2000

3. 조선과 건축, 제7집 제3호, pp.135-137, 1928
4. 연세대학교 웹사이트, <http://www.yonsei.ac.kr>
5. 서울문화재 웹사이트, <http://sca.seoul.go.kr/>